

『心經』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f Hsin Ching(心經)

구정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과
남태우(중앙대학교 문헌정보과)

Koo Jeong-Soo, Dept. of Lib. & Info.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
Nam Tae-woo, Prof. of Lib. & Info. Science in Chung-Ang Univ.

본 논문은 中國 宋代의 西山 眞德秀가 先代 儒家書에서 心學에 관계되는 여러 성현의 격언을 순차적으로 모아 撰한 性理書인 『心經』에 대한 書誌的 研究이다. 16세기 이후 朝鮮의 주요 性理書의 하나로 刊行 보급되었던 『心經』에 대해, 『心經』 撰者와 刊行 및 『心經附註』의 刊行 경유와 『心經』의 國內流入 과정을 살펴보고, 冊板目錄 상의 板本과 現存 板本을 조사하여, 冊板目錄 상의 板本을 地域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現존 刊本 現況을 분석하여 판本 種수를 기술하였다.

1 緒 論

1.1 研究의 目的

『心經』은 中國 宋代의 西山 眞德秀(1178-1235)가 先代 儒家書에서 心學에 관계되는 여러 성현의 격언을 순차적으로 모아 撰한 性理書이며, 이에 明代의 程敏政(1445-1500)이 附註한 책이 『心經附註』이다. 中國에서 高麗末에 유입된 新儒學은 이후 朝鮮時代에 지배사상으로 자리잡아, 朝鮮의 性理學으로 성장 발전해 나갔다. 학문적인 이해가 심화되고 士林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朝鮮 中期인 16세기에 이르러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철학적 이론이 심화되어 갔다. 특히, 이 시기에 退溪 李滉

1501-1570)에 의해 朱子學 중심의 性理學으로 朝鮮性理學이 정리되었으며, 朱子學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해 나갔다. 退溪 철학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은 心學이었으며, 이는 眞德秀 撰한 『心經』에 程敏政이 附註한 『心經附註』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退溪學派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退溪가 『心經』을 존중하여 王의 心法으로 중요시한 후, 조정에서도 책의 간행 보급에 대한 논의가 일었으며, 『心經』을 經筵에서 講할 것을 건의하였고, 孝宗朝에는 『近思錄』과 함께 조정의 經筵科目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退溪學派를 중심으로 한 『心經』의 연구 성과들은 註釋書, 즉 『心經』을 공부하기 위해 책의 내용에 관한 주석을 모으거나 해

설한 책의 편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論語』, 『大學衍義』 등과 함께 조선시대 性理書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心經』은 中央官, 地方監營, 書院, 私家 등의 간행처에서 다수의 판본이 간행되어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 중기 이후 주요 성리학의 하나로 간행 보급되었던 『心經』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退溪學과 맞물린 철학 관련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을 뿐이었다. 이에 종래의 철학관련 관점과는 달리 『心經』에 대한 書誌學的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心經』撰者와 刊行을 살펴보고, 둘째, 『心經』의 국내유입 과정과 국내에서 간행된 『心經』 및 註釋書 간행을 파악하고, 셋째, 문헌상의 판본과 현존 판본에 관한 形態書誌의 분석과, 넷째, 현존 판본을 중심으로 한 내용 비교를 통해 校勘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心經』에 대한 書誌的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心經』 편찬자와 국내유입 및 국내 편찬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문헌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心經』과 註釋書 전체 현존 板本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心經』의 書名은 본문 1장의 1행의 서명인 卷頭書名을 기준 서명으로 삼았다.

현존 『心經』 刊行本이 16세기 이후 간행본인 바, 기간을 朝鮮時代 즉 조선 초부터 1910년으로 한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心經』에 대한 문헌상의 板本目錄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冊板目錄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현존 板本조사를 위해 國立中央圖書館, 奎章閣, 藏書閣, 국내 大學圖書館의 古書綜合目錄, 韓國典籍綜合目錄, 韓國古書綜合目錄, 기타 개인 收藏家의 장서를 조사하여 『心經』의 書目を 작성하였고, 이들 소장본 중 일부를 實事하여 形態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心經』의 編纂과 刊行

2.1 『心經』의 撰者와 刊行

『心經附註』每卷의 次行 하단에 〈西山眞氏〉라는 기록이 보이고, 또한 程敏政이 쓴 「心經附註序」에서도 文忠公 西山 眞德秀가 心經을 編했다¹⁾는 기록으로 보아, 『心經』은 西山 眞德秀가 撰한 冊임을 알 수 있다.

西山 眞德秀(1178-1235)는 中國 宋代의 학자로 『宋史』 「列傳」에서는 字는 景希이고, 福建 連城 사람이다. 慶元 5년(1199)에 進사로 登第한 이후 계속하여 여러 관직에 임명되면서 나중에는 資政殿學士 提舉萬壽

1) 『心經附註』 「序」, 西山先生眞文忠公, 嘗摭取聖賢格言, 爲心經一編.

觀兼 侍讀에 까지 이르렀으며, 端平 2年(1235)에 58세로 卒去하였다. 사후에 銀青光祿大夫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文忠으로 나렸다.

그가 관직생활을 한 것은 비록 10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동안에 奏疏를 지어 바친 것은 수십만言에 이르고, 宋 寧宗때 軍國師 韓侂胄가 정치를 전횡하면서 僞學이라 하여 금지시켰던 近世大儒의 서적을 해금하는 데 노력하여 송대 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는 『西山甲乙藁』, 『對越甲乙稿』, 『經筵講義』, 『政經』, 『西山讀書記』를 비롯하여 많은 저술이 있으며, 『心經』도 그 일부이다.²⁾

『心經附註』의 「心經總目」에서의, 『心經』의 차례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書	(大禹謨)人心道心章
詩	(魯頌)上帝臨女章, (大雅)視爾友君子章
易	(乾九二)閑邪存誠章, (坤六二)敬以直內章, (損大象)懲忿窒慾章, (益大象)遷善改過章, (復初九)不遠復章
論語	子絕四章, 顏淵問仁章, 仲弓問仁章
中庸	天命之謂性章, (詩)潛雖伏矣章
大學	誠意章, 正心章
樂記	禮樂不可斯須去身章, 君子反情和志章, 君子樂得其道章
孟子	人皆有不忍人之心章, 矢人函人章, 赤子之心章
孟子	牛山之木章, 仁人心章, 無名之指章, 人之於身也兼所愛章, 勻是人也章, 飢者甘食章, 魚我所欲章
孟子	鷄鳴而起章, 養心章
周子	養心說, 通書聖可學章
程子	視聽言動四箴

范氏 心箴
朱子 敬齋箴, 求放心齋銘, 尊德性齋銘

이와 같이, 眞德秀는 『書經』 『詩經』 『易經』의 三經에서 모두 9편,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의 四書에서 18편, 『樂記』에서 3편, 周子の 글에서 2편, 程子の 글에서 1편, 范氏의 글에서 1편, 朱熹의 글에서 3편, 도합 37편을 글을 모으고 다시 朱熹, 二程子에 관계되는 글을 인용하여 『心經』을 편찬하였다.

程敏政에 의하면, 眞德秀가 『心經』을 편찬한 동기는 心性에 관한 학문이 밝혀지지 않고 人心이 物慾에 가려져서 利慾의 추구에만 운명을 걸고 의리는 오직 입에만 오르내릴 뿐인 현실을 슬퍼한 데 있었다.³⁾

眞德秀가 『心經』을 편찬한 시기는 두 번째로 泉州 太守에 부임해 있을 때였는데, 眞德秀의 弟子인 王邁가 쓴 글에 따르면

西山先生眞文忠公 心經一書... 乃先生再守溫陵日所著...

라 하여, 그가 溫陵의 太守로 再任되었던 시절인 것 같다.⁴⁾

그리고 그의 弟子 顏若愚는 이 『心經』의 초고를 필사하여 端平 元年(1234)에 郡學에서 刊行한 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⁵⁾

程敏政은 顏若愚가 이 『心經』의 刊行 시

2) 『宋史』19冊, (臺灣: 中華書局, 1970), 卷437, pp.56-96.

3) 『心經附註』 「序」, 性學不明, 人心涵溺, 寄命于耳目, 騰理于口舌. 此先生之所深悲, 而心經所由述也.

4) 尹炳泰, “退溪와 心經附註”, 『도서관학논집』 제5집(1978), p.70.

에 原文 37장 이외에도 原文 이해에 도움이 될 程朱 등 13家の 說 72節을 註로 삼입해 넣은 듯 하다고 밝힌다.⁶⁾

이렇게 眞德秀는 宋代에 心性에 관한 학문이 밝혀지지 않고 利慾만을 추구하는 現實에 대한 대안으로 儒家의 경전 중에서 心性에 관한 格言을 뽑아 『心經』을 編纂하였으며, 그 弟子 顏若愚에 의해 端平 元年(1234)에 郡學에서 刊行되었다.

2.2 『心經附註』의 撰者와 刊行

『心經』을 附註한 篁墩 程敏政(1445-1500)은 中國 明나라 사람이다. 그의 傳記는 『明史』 「列傳」에 실려 있는데 자는 克勤이고 休寧 사람으로 南京兵部 尙書였던 信의 아들이다. 10살에 아버지의 任地인 四川에 따라가자, 巡撫로 있던 羅綺가 그가 신동임을 보고 임금께 薦舉하였는데, 英宗이 보고 기뻐하여 그를 翰林院에서 독서하게 하였다. 成化 2년(1466) 進士로 급제하여 編修에 임명되었다. 여러 벼슬을 지내다가 弘治 12년(1499)에는 科擧에 관계된 일로 下獄되기도 하였으나 곧 出獄하여 출옥 후 4일만에 卒하였다 한다. 사후에 禮部尙書의 贈職을 받았다.⁷⁾

程敏政이 『心經附註』를 編纂한 「心經附註序」末尾에 있는 날짜가

弘治五年壬子七月望 後學新安程敏政謹序

라 있는 것으로 보아, 弘治 5년(1492) 7월 경이었던 것 같다.⁸⁾

程敏政은 顏若愚가 간행한 端平 元年 刊本 『心經』을 채택하여 附註를 하게 되는데 顏若愚가 간행하면서 삼입한 註가 原文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附註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程敏政은 자신이 따로 40家の 說 329節을 보충하면서 상세한 註를 달았다. 특히 敬을 말한 學說로 상세한 注를 달았다. 그 40家 329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朱熹(155)	程顥(61)	程頤(16)	張子(11)
南軒(10)	范藹溪(8)	眞德秀(7)	
龜山(6)	胡五峰(2)	臨川(3)	司馬溫公(2)
胡李隧(1)	構渠(2)	荀子(2)	
呂氏(2)	慈溪黃氏(1)	魯齋(1)	和靖(1)
邵子(1)	鄭氏(1)	延平(1)	
趙致道(1)	王幼觀(1)	東萊(1)	節孝徐公(1)
元成劉氏(1)	藍氏(1)	東厓陳氏(1)	
呂與叔(1)	有人(1)	蘇子瞻(1)	王信伯(1)
武夷胡氏(1)	致堂胡氏(1)	永嘉鄭氏(1)	
象山(1)	葉氏(1)	果齋李氏(1) ⁹⁾	

5) 『心經附註』 「心經贊後敍」, 若愚...手抄此經, 晝誦而夜思之, 庶幾其萬一, 復鋟板于郡學, 與同志勉云...端平改元十月既望 後學顏若愚敬書.

6) 『心經附註』 「序」, 凡程朱大儒開示警切之言, 多不在卷意, 此經本出先生, 而註則後人雜入之故耶. 13家 72節, 朱熹(32), 毛氏(1), 鄭氏(6), 程子(16), 伊川(8), 龜山(2), 新安王氏(1), 橫渠(1), 楊氏(1), 孔氏(1), 梁氏(1), 南軒(1).

7) 『明史』.

8) 尹炳泰, 前掲書, p.71.

『心經附註』卷末의 沙溪 汪祚의 「識文」에서 살펴보면

心經附註 我篋墩先生 本西山眞文忠公 心經爲網 採摭程朱以下 大儒之言...不敢自 私請刻之 以惠後學 傳四方 使天下後世之人 曉烈知心學正傳... 弘治壬子十二月望日 門生歙西沙溪汪祚識

心學의 正傳하기 위해 스승 程敏政의 附註를 더한 책을 弟子 汪祚의 自請으로 刊行한 것을 볼 수 있다. 弘治 5년(1492)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心經附註』를 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程敏政은 眞德秀의 제자인 顏若愚가 刊行시 넣은 註가 原文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附註를 더하였고, 汪祚의 請으로 弘治 5년(1492)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心經附註』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3 『心經』의 國內流入 및 國內刊行

3.1 『心經』의 國內流入

眞德秀에 의해 心에 관한 격언을 모아 編纂되고, 또한 그 弟子 顏若愚에 의해 端平 元年(1234)에 郡學에서 刊行된 『心經』언제 조선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明代

에 程敏政에 의해 附註를 더하여 弘治 5년(1492)에 刊行된 『心經附註』를 16세기 이후 朝鮮의 성리학자들이 애독하였다는 기록은 다수의 문헌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아 늦어도 15세기에는 朝鮮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은 程敏政의 『心經附註』가, 眞德秀의 『心經』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를 혼용하였고, 『心經』이라 기록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心經附註』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世祖 7년(1461) 刑曹에서 승려의 禁防條件을 정하는 가운데 『金剛經』 『心經』을 위우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¹⁰⁾ 이 때의 『心經』은 佛經인 『般若心經』으로 생각된다. 成宗 元年(1470)에도 같은 문제를 논하는 가운데 『心經』 『金剛經』 『法華經』 등의 서명이 나오는데,¹¹⁾ 이 때에도 역시 『心經』은 불경을 가리킨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자료에서 인용되는 『心經』은 대개 불경인 『般若心經』을 지칭한다고 보여진다. 세조 13년(1467) 일본 사신에게 하사한 物目 중에서 여러 물건과 함께 각종 서적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이 불경이며 書目的 끝부분에 『眞草千字文』 『心經』 『八景詩帖』 『東西銘』 『赤壁賦』 『蘭亭記』 등이 보인다.¹²⁾ 이 경우 『心經』이 천자문이나 詩文들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경이 아닐 가능

9) 金知見, 前掲書, p.15.

10) 『世祖實錄』卷23, 世祖 7年 3月 庚戌.

11) 『成宗實錄』卷4, 成宗 元年 3月 乙酉.

12) 『世祖實錄』卷43, 世祖 13年 8月 丁未, 趙學士石本眞草 千字文 心經...東西銘 赤壁賦 蘭亭記..

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특히 『東西銘』이 북송대 성리학자인 張載의 『東銘』 『西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심경』은 성리서일 가능성이 크다.

世宗代 孫肇瑞(?-?)의 文集 『格齋集』을 보면 15세기에도 학자들이 불경이 아닌 性理書로서의 『心經』을 읽었던 사실을 볼 수 있는데, 孫肇瑞는 世宗代 出仕했다가 世祖 즉위 이후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였는데 그의 「墓表」가 147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반 무렵에 활동한 인물이다. 고향은 안동이며, 詩文의 대가로서 당대의 碩學 金宗直과 친교가 두터웠고, 門下에서 鄭汝昌·金宏弼 등과 같은 巨儒를 배출하여 명망이 높았다. 鄭宗魯가 쓴 그의 「墓碣銘」에 의하면 손조서는 「四勿箴」을 암송하였고, 『心經』 『近思錄』을 밤낮으로 공부했다고 한다.¹³⁾ 기록이 보이고, 같은 책에서 孫肇瑞는 『心經衍義』와 『近思錄衍義』등 성리서를 저술하였다고 한다.¹⁴⁾ 이는 孫肇瑞의 아들 孫胤漢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 여기에서 孫肇瑞가 지은 『心經衍義』에 다른 글들은 덧붙여 成宗 10년(1479)에 文集 4冊을 간행하였다. 그러네 이 문집은 壬辰倭亂 등의 兵火로 소실되고 현재는 詩文만이 전해질 뿐이라 『心經衍義』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15세기 중반에 朝鮮에서 『心經』이 읽혀져 그와 관련된 저술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사실로 15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眞德秀의 『心經』이 유입되었으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후반의 학자인 崔忠成(1458-1491)은 호남의 영암·나주에 거주했으며, 그의 저서 『山堂集』에 기록을 보면, 崔忠成은 金宏弼의 가르침을 받아 『小學』을 근본으로 하고 『心經』 『近思錄』등에 힘써 성리학의 깊은 뜻을 연구하였다고 한다.¹⁵⁾ 이를 보아 15세기 후반에도 유학자들은 『心經』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眞德秀의 『心經』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心經』이 中國에서 端平 元년(1234)에 간행되었으므로, 新儒學이 전해진 高麗末 혹은 朝鮮初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太宗 3년(1403) 明의 皇帝가 眞西山의 『讀書記』와 朱子成書 各一部를 보내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¹⁶⁾ 眞德秀의 『大學衍義』가 15세기 초에 이미 朝鮮에서 刊行된 사실로 볼 때,¹⁷⁾ 朝鮮 初에 이미 眞德秀의 著述을 접하였으므로, 그의 또 다른

13) 『格齋集』 「附錄」 卷2, 「墓碣銘并序」, 公謂四勿箴最切於日用 平居 每莊誦爲服膺地 手不釋心經近思錄 日夜研究 與佔畢齋醉琴軒兩賢交契深密 講論經學 以興起斯文爲事 寒暄一晷兩先生皆尊事之.

14) 『格齋集』 「附錄」 卷1, 「舊刊集跋文」, 乙亥?官閒居 詠詩自娛 廣唐宋詩絕句韻 嘗著心經演義 性理群書 諸賢詩次韻暨雜詠 疏筭 書牘 合四冊.

15) 『山堂集』 「附錄」 卷4, 「家狀」.

16) 『增補文獻備考』 卷242, 「藝文志」 1.

17) 『大學衍義』 「跋文」, 1403年...權近, 1422年...卞季良, 1434年...金鎰.

〈표 1〉 冊板目錄에 수록 된 『心經』

冊版	攷事 撮要	攷事 撮要	攷事 撮要	攷事 撮要	攷事 撮要	攷事 撮要	慶尙 道冊板	冊板 置簿冊	三南 所藏 冊板	諸道 冊板 錄	完營 冊板 目錄	嶺湖 列邑 所在 冊板 目錄 1760	各道 冊板 目錄	書冊 目錄	各道 冊板 目錄
地域	1576	1585	1613	1636	1674	1734	1730	1740	1743	1750	1760	1760	1778	1815	1840
慶尙 地域	慶州						心經	心經	心經			心經			
	星州						心經	心經	心經	心經	心經	心經 發彙	心經 發彙	心經 發揮	心經 發揮
	安東														心經 近思 錄
	永川								心經 覽疑	心經 質疑	心經 質疑			心經 質疑	心經 質疑 考誤
全羅 地域	光州	心經 付註	心經 付註												
	羅州							心經 診解			心經 診解	心經 診解			
	南原		心經 附註												
	全州							心經 釋義			心經 釋義				
北漢 地域	平壤		心經												心經
	咸鏡監 營							心經		心經	心經				
	寧邊												心經		
서울 地域	校書館												心經		
其他	無地名	心經 附註	心經 附註	心經 附註	心經	心經	心經								

저자인 『心經』도 늦어도 15세기 초에는 朝鮮에 전래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15세기 중반과 후반에는 『心經』이 보급되어 있음을 위의 孫肇瑞의 崔忠成의 문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心經附註』를 접하고 그 가치를 주목한 학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인물로는 趙光祖

(1482-1519)와 金安國(1478-1543) 뽑을 수 있다.

尹炳泰 教授는 김굉필의 학통을 이어받은 金安國도 『小學』, 『心經』등의 관심을 가지고 성리서의 보급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에 中宗 18년(1523) 光州에서 간행된 光州刊 木版本 『心經附註』가 金安國이 全羅

道觀察使로 在任하였던 中宗14년(1519)경에 光州牧使에게 시켜서 『心經附註』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측하였다.¹⁸⁾ 金安國은 또한 제자들에게 『心經』을 가르쳤으며 1543년 卒去할 무렵 許忠吉에게 『心經』을 주었다고 하였다.¹⁹⁾

4 『心經』의 書誌的 分析

4.1. 冊板目錄上의 『心經』收錄 現況

문헌상의 『心經』板本을 조사하기 위해 現存本 冊板目錄을 중심으로 刊記를 확인할 수 있는 冊板目錄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年度順으로 정리하여 地域區分을 하여 살펴보았다.

『心經』을 수록하고 있는 冊板目錄을 다음의 <표 1>로 정리하였다.

4.2 現存『心經』板本の 概要

現存하는 『心經』의 판본을 조사하기 위하여 古書目錄을 중심으로 필사본을 제외한 板本을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고, 현존 古書目錄에 대한 修訂·增補版의 未盡으로 인하여 누락된 판본들은 검색 가능한 綜合目錄DB를 대상으로 보완하였으며, 綜合目錄DB 상에서 수집된 목록 중 不完全한 事項을 가진 板本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現存本 『心經書目』을 작성하였다.

現存하는 『心經』의 판본은 대략 237종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른 판본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된 『心經』을 서명별로 정리하면, 『心經附註』, 『心經發揮』, 『心經附註釋疑』, 『心經講錄刊補』, 『心經質疑考誤』, 『心經發揮附刊辨破錄』, 『心經集解』 등 7종이 現存하고 있다.

조사된 7종에 대한 판본 종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心經』의 板本 宗수

書名	木版本	活字本 (木活字 포함)	合(種)
『心經附註』	91	39	130
『心經發揮』	43	5	48
『心經附註釋疑』	14	8	22
『心經講錄刊補』	14	0	14
『心經質疑考誤』	9	0	9
『心經發揮附刊辨破錄』	7	0	7
『心經集解』	0	7	7

5 結 論

본 연구는 16세기 이후 朝鮮의 性理學者들이 애독했던 『心經』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退溪學 과 맞물린 철학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心經附註』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16세기 이후 『論語』, 『大學衍

18) 尹炳泰, 前掲書, p.9.

19) 『草堂集』, 許曄, 『許南溪忠吉墓銘』, 公受業金慕齋先生 臨終授以心經 吾亦得以始見之.

義』등과 함께 조선시대 性理書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心經』은 中央官, 地方監營, 書院, 私家 등의 간행처에서 다수의 판본이 간행되어 보급되었음에 주목하여, 書誌學的인 관점을 중심으로 『心經』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첫째, 『心經』撰者와 刊行 경위를 살펴보고, 둘째, 『心經』의 國內流入 過程과 國內에서 刊行된 『心經』및 註釋書 刊行을 파악하고, 셋째, 文獻상의 板本 조사와 現存 板本을 조사하여 形態書誌的으로 분석한 후, 넷째, 現存 판본을 중심으로한 誤字 및 異體字 등 校勘적으로 분석하여 『心經』에 대한 書誌的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國內 刊行에 관한 연구와 書誌的 分析과정 연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진행과정에서 위에 전개한 연구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 『成宗實錄』 『世祖實錄』 『明史』
 『宋史』 『增補文獻備考』 『大學衍義』
 『格齋集』 『南溪集』 『山堂集』
 『草堂集』
- 鄭亨遇,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 保景文化社, 1995).
- 김선희, “『심경부주』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02.
- 金允濟, “朝鮮 前期 『心經』의 이해와 보급”, 『서울大韓國文化』 18(1996.12), pp.183-229.
- 金鍾錫, “退溪學 연구분야의 새로운 논의 : 『心經附註』와 心學”, 『慶北大韓國의哲學』 21(1993.12), pp.43-64.
- 金知見, “眞德秀 『心經』의 修養論的 分析과 東儒 『心經』 理解”,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韓國學大學院, 1993.
- 申龜鉉, “西山 眞德秀의 『心經』과 退溪 李滉의 心學”, 『退溪學報』 53(1987. 3), pp.51-62.
- 尹炳泰, “退溪와 心經附註”, 『도서관학논집』 제5집(1978), pp.67-89.
- _____, “十六世紀·十七世紀 刊行 『心經附註』有後論本の 版本 : 退溪書誌의 研究 其四”, 『도서관학논집』 제6집(1979), pp.141-158.